

남미 좌파의 퇴조와 우리의 대응전략

김철희 관장
코트라 리마무역관

■ 주요 내용

- 중남미 좌파는 볼리바르동맹(ALBA)으로 불리는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비롯한 급진적 성향의 좌파와 칠레, 브라질 등 시장 경제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확대에 치중하는 보수적 좌파로 구분할 수 있음.
- 중남미 좌파 정권은 특별한 통치철학도 없고 철저히 민중의 인기의 의거한 정책을 취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분배할 자금이 고갈되는 한편, 지도층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민중의 분노를 일으키게 됨.
- 중남미의 우파 신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처하여 새로운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중남미 좌파 민중주의 정권의 부상 및 특징

☞ 좌파 민중주의의 대두

- 1999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집권 이후 15년 넘게 이어져 온 중남미 좌파 민중주의(Pink Tide)¹⁾는 대두는 149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남미 수탈의 역사로부터 기원함.
 - 스페인에 의한 아메리카 발견 이후 500년이 지난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대비되는 도시는 뉴욕과 카라카스임.

그림 1. 뉴욕의 현재 모습



그림 2. 인구 중 60%가 빈민가에 거주하는 카라카스



- 특히 베네수엘라 (최대 석유자원 보유국)을 비롯한 자원 부국들로부터 이러한 좌파 민중주의가 대두되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선진국 자본들의 착취는 지속되는 반면 민중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반발
 - 중남미 지도층의 정치적 혼란과 부패가 지속됨에 따른 국민의 염증
 -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동안의 문명의 혜택과 격리되어 있던 피지배층의 의식 개혁으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중남미 좌파 민중주의 특징

- 중남미 좌파 민중주의는 볼리바르동맹(ALBA)²⁾으로 불리는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비롯한 급진적 성향의 좌파와 칠레, 브라질 등 시장 경제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확대에 치중하는 보수적 좌파로 구분할 수 있음.

1) Pink Tide : 2014년 11월까지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남미 10개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은 것을 두고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

2) ALBA : 2005년 베네수엘라와 쿠바이 협력으로 탄생한 강경 좌파 동맹으로 현재 회원국은 9개국.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독립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목적임. 에너지분야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회원국에 장기 저리로 원유를 제공하고 회원국은 바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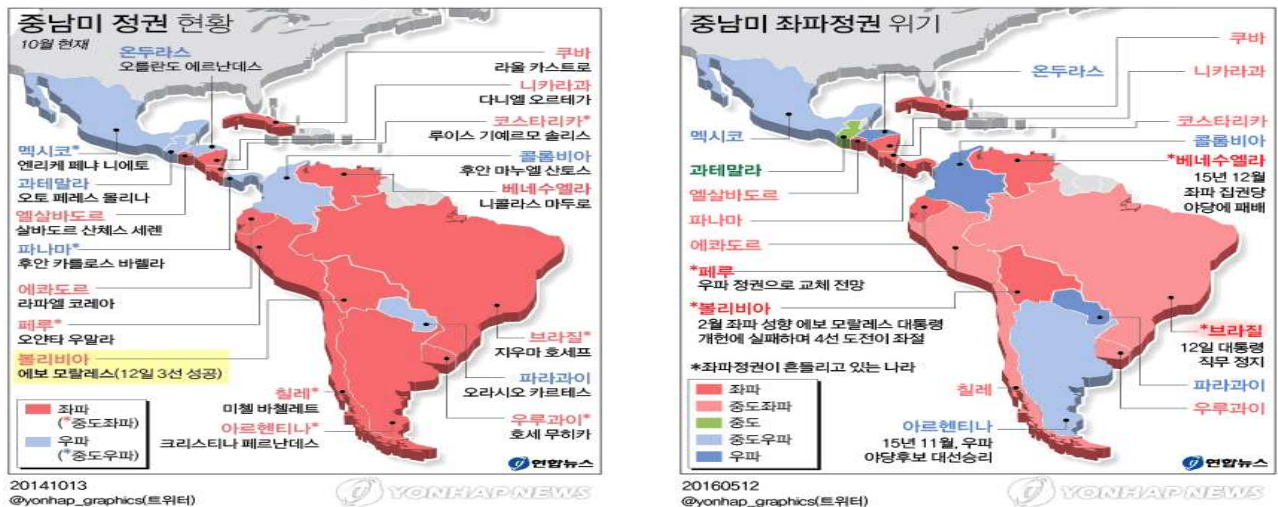
- 70~80년대 남미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좌파 정권은 이후 우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득세하고 있음.
 - 2000년대 보수 좌파의 특징은 70~80년대 좌파 경제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2000년대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서민 위주의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임.
- 2000년대 좌파 민중주의가 현재까지 득세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철저히 민중의 인기에 기반(주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의거 결정)
 -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정치·경제적으로 결속함으로써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2013년 배럴당 유가는 100 달러를 상회)으로 축적된 풍부한 자본으로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침.

2 좌파 민중주의의 한계와 급격한 퇴조

좌파 민중주의의 한계와 퇴조

- 특별한 통치철학도 없고 철저히 민중의 인기의 의거한 정책 (차베스는 집권 14년 동안 17번의 국민투표에서 16번 승리)을 취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분배할 자금이 고갈되는 한편, 지도층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민중의 분노를 일으키게 됨.
- 2014년 말까지 남미 파라과이,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를 차지했던 좌파 정권은 2015년 이후 대선에 패배하며 급격히 퇴조하고 있음.
 -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 경제정책의 잇따른 실패, 지도층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 등이 주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좌파 정권이 퇴조하고 있다는 방증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음.
 - 201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당선
 - 2015년 12월 베네수엘라에서 중도우파연합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
 - 2016년 2월 2025년까지 임기연장을 위한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국민투표 패배
 -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경제난을 이유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 2016년 6월 페루 쿠진스키 우파 대통령 당선
 - 2016년 9월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그림3. 중남미 정권의 변화(2014년 10월 → 2016년 5월)



자료 : 연합뉴스

❑ 퇴조의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

- 고유가와 중국의 높은 원자재 수요의 시기가 끝나고 세계 경기 불황으로 원자재 가격의 급락,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된 좌파정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됨.
- 중남미에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실용주의 노선이 점차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포퓰리즘의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같은 지도자들을 아직도 성인(성녀)로 숭배하고 있어서 포퓰리즘이나 페론이즘³⁾의 정권이 어느 순간에 망령처럼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새로운 변화에 대처한 우리의 진출전략

❑ 좌파 민중주의에서 우파 실용주의로 정책 변화 예상

- 좌파 정부의 특징
 -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를 얻고자 좌파 국가들끼리 연합함으로써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함.
 -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하여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이

3) 페론이즘 : 아르헨티나 정치운동으로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 페론의 정치활동이 그 출발점이 되는 정치적 기조. 이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의 원조라는 시각도 있고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견해도 있음.

- 는 중국의 본격적인 중남미 진출의 계기가 됨
-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의존도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국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국가에 관심도가 높았음.
- 새로이 부상하는 우파 실용주의 정권의 정책 예상
 - 조세 감면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 국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 및 대외 개방적 정책
 - 미국, 중국 등 주요 파트너 국가와 관계 강화
 - 외국인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 빈곤층,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정책 강화
- 향후 전망
 - 2000년대 좌파 민중주의로 인한 왜곡된 경제 정책과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고갈된 재원으로 인해 단기간 경제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임.
 -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빈곤층을 축소하고 빈부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우리의 진출 전략

- 중남미 지역통합체의 적극 활용(태평양 동맹)
 - 2016년 5월 발효한 태평양 동맹의 회원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 남미 브라질 중심의 MERCOSUR와 더불어 중남미 지역통합체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고 개방과 자유무역,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와 FTA가 체결된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조달시장 등에 진출하기가 용이하여 이들 국가에 먼저 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멕시코로 본격 진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FTA 체결 국가에 대한 진출 확대
 - 중남미 국가 중 칠레('04.4월), 페루('11.8월), 콜롬비아('16.7월)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로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페루,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⁴⁾의 회원국으로, 한국과 FTA도 성숙단계로 접어들어서 적극적인 투자 진출이 필요함.
 - 기존 자원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투자를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 융합형 상품의 진출

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 간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현 가입국은 미, 일 등 12개국

- 중남미 대부분 국가도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중국산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어 우리의 단순 완제품 수출은 쉽지 않음.
 - IT 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상품으로 진출이 바람직함.
 - 중남미 소비자들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상품을 선호하고 “스마트”, “인텔리전트” 등의 용어를 좋아함.
- 공공조달 시장으로 진출 확대
- 전력 및 에너지, 의약품 등 현지 정부의 조달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필요
 - 중남미의 신정부들은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것임.
 -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Generic⁵⁾, Biosimilar⁶⁾)과 전력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EMERiCs**

출처

트랜스라틴 31~32호, 연합뉴스, 중남미 주요언론

5) Generic 의약품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품

6) Biosimilar 의약품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모방하여 만든 비슷한 효능의 의약품